

### 3. 삶을 계획하기

우리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적어봅시다.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4. 함께 드리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 같습니다. 이런 세상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 17:13]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2월 13일

## '나움' 보다 '다름' 입니다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438장
- 성경읽기 : 창 17:9-14 (구약 20면)
- 말씀나눔 : '나움' 보다 '다름' 입니다.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 0. 본문 배경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라.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람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으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너와 네 후손은 내 계약을 대대로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지켜야 할 내 계약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너희 모든 남자는 태어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이나 외국에서 사온 종도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를 피부에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나와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자이므로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과 후손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말씀 관찰

1) **하나님은 아바라함에게 남자 후손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까? (10절)**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습니다.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순히 살점을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세상을 잘라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지닌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분리가 아닌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 2) 할례는 생후 며칠 안에 해야 합니까? (9-12절)

**대대로 모든 세대가 8일 안에 해야 합니다.**

9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족과 후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할례 언약의 초점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가정 대대로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대대로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할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가족은 대대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시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개인은 자신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 2. 말씀 적용

1) **나와 세상을 비교할 때 구별된 부분이 있다면 가족과 나누어봅시다.**

2) **우리 가정이 대대로 할례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다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